

친밀공동체로서의 공동주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

: 장기간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
박범기

친밀공동체로서의 공동주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

: 장기간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박범기

목 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 필요성
 - 2) 연구 목적
2. 연구대상
 - 1) 공동주거의 유형
 - 2) 연구대상의 정의
 - 3) 연구대상 공동체 사례 개요
 - 4) 연구 참여자 사례 개요
3. 연구방법
 - 1) 표집
 - 2) 연구질문
 - 3) 선행연구
4.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
 - 1)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
 - 2)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역할
 - 3) 소결
5. 친밀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경합
 - 1) 친밀영역의 확대와 사적영역의 과소화
 - 2) 사적 영역의 강조, 갈등의 계기
 - 3) 소결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필요성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2011년 시행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14㎡(4평)이다.¹⁾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숫자는 상당하다. “2010년 기준 1인 청년 가구 34만 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12만 3천 591가구(36.3%)가 주거 빈곤 상태였으며 이들 중 5만 8천 여명은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열악한 곳”²⁾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청년층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점에서 청년층에게 있어 주거 문제는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공동주거이다.³⁾ 공동주거는 넓은 집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함께 분담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서 공동주거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형태로서 부각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인 ⁴⁾ 셰어하우스는 청년 주거의 대안으로 부각되어 늘어나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 셰어하우스는 고수의 투자모델로서 부각되어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에서는 청년주거 문제의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집에서 청년 주거비 절감 공약으로 “월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⁵⁾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동네 두레주택,⁶⁾ 청년주택⁷⁾ 등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동주거는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간의 관계를 만든다. 이때 생겨나는 관계는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긍정적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동주거가 거론 될 때, 공동주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해지지 않는다. 연구자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으로써 공동주거를 거론 할 때, 공동주거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의 성격과 그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들로부터 공동주거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공동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이들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동주거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했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최저주거기준」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59613>

2) 연합뉴스, 「서울 청년 23% '주거빈곤'...옥탑 · 고시원 등서 생활」, 《연합뉴스》, 2015. 04.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0/0200000000AKR20150420116400004.HTML>

3) 이 연구에서 공동주거라는 용어는 셰어하우스,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한 집을 공유하거나, 각기의 독립적인 집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공동의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형태를 포괄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공동주거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타인과 함께 집을 공유하여 사는 집을 말한다. 곧, 청년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집을 공유하여 살거나, 각기의 집에서 살면서 공동의 공간 안에서 관계 맺는 형태를 포괄한다.

4) 國土交通省, 2012, 『民間賃貸住宅における共同居住形態に係る實態調査報告書』 재인용, 남원석 · 박은철, 「1인 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2014, 2.

5)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2017, 199.

6) 정유진,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도봉구에 첫 선, 《경향신문》, 2012, 12,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246595&code=950201

7) 김기범, 「서울시 '청년주택 1호' 임대료...1인 가구 기준 월 12만~38만원」, 《경향신문》, 2017. 01.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92241005&code=620101

다. 그간의 선행연구나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청년층의 공동주거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동주거의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연구는 공동주거 거주자들의 삶과 그들이 공동주거를 통해 맺는 관계들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연구자는 2015년 8월부터 2년 여간 공동주거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삶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 착안해 연구자는 공동주거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개인이 공동주거를 통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며, 그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역할과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 연구는 공동주거를 통해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거는 단순히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집을 통해 구성원 사이에 관계가 생겨나고, 이는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 점에서 공동주거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대상

1) 공동주거의 유형

(1) 셰어하우스 (공유주택⁸⁾)

“셰어하우스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로서,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자신의 개인 침실을 사용하고 주택의 나머지 부분을 공유한다.”⁹⁾ 셰어하우스는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한 집을 공유하여 살게 되는 형태로,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의 셰어하우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셰어하우스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시되면서 긍정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고수의 투자처로 인식되어 민간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형아파트를 셰어하우스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등 투자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공급되는 셰어하우스들은 “현대판 고시원”¹⁰⁾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8) 공유주택은 셰어하우스를 다듬은 말로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용어이다. 이재훈, 「국립국어원, 셰어하우스 대신 ‘공유주택’ 어때요?」, 《뉴시스》, 2014. 08. 01. <http://news.joins.com/article/15424086>

9) 国土交通省, 2012, 『民間賃貸住宅における共同居住形態に係る實態調査報告書』 재인용, 남원석·박은철, 「1인 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2014, 2.

10) 김보현, 「9억짜리 아파트 50만원에 살다」, 《한겨레 21》, 2017. 09. 18. [http://h21.hani.co.kr/arti/cor/cor_general/44193.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r/cor_general/44193.html)

(2)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거주자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주택”¹¹⁾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정의 안에는 코하우징의 개념이 포함된다.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완벽한 단위주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함께 계획된 공동주택”¹²⁾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각각의 가구들이 독립적인 집 안에서 거주하되, 그들이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동체주택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주택은 서울시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로써 제시되고 있는 모델이다.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을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모델로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¹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주택은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통해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8년부터 공동체주택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동체주택마을이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을 모아 마을을 꾸리고, 마을 내에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¹⁴⁾이다. 공동체 마을은 공동체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친밀 공동체형 공동주거

친밀 공동체형 공동주거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밀관계와 친밀성 그리고 친밀 공동체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정성훈의 논의¹⁵⁾에 빚지고 있다. 정성훈은 친밀관계를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내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면서 서로를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으로 확인해주는 관계”¹⁶⁾로 정의하며, 친밀공동체를 “현실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에 관여하는 인격들이 서로를 기능적 역할로서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적 개인으로 서로를 확인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높은 공동체”¹⁷⁾로 정의한다.

-
- 11) 김진경·정석, 「공동체주택에서 사는 것은 경제적인가 : 소행주 거주자들의 주택구입비용과 생활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통권 18호, 2017.
 - 12) 한민정·이상호, 「코하우징에 적용된 커뮤니티 개념의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통권 16호, 2005, 93.
 - 13) 남원석·박은철,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2014, 3.
 - 14) 최민지, 「서울 면목동에 첫 ‘공동체주택마을’ 만든다」, 《경향신문》, 2017. 09.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62129025&code=620101#csidx3cd1e31a40c027b8fcf673e8d4a6555
 - 15) 정성훈, 「현대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통권 41, 2011.
 - 16) 정성훈은 루만의 논의에 따라 친밀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루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격적 개체성(personal individuality)’을 기능적으로 분화시켰다. 각 개인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인격적 개체성을 자신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개인 스스로 온전히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대체불가능한 자기 정체성의 추구는 사실상 타자의 반복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자로 확인해주는 관계”(362)를 요청한다. 이때 만들어지는 관계가 친밀관계이다.

친밀관계는 대개 1:1의 관계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격적 개체성을 분화시킨다. 각 개인은 스스로 인격적으로 고유한 개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개인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다. 대체불가능한 자기 정체성의 추구는 사실상 타자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인은 자신을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인정해줄 타인을 찾는다. 이때 맺는 관계가 친밀관계이다. 이러한 1:1의 친밀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은 서로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각 개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친밀 공동체는 “주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밀도 높은 관계인 친밀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친밀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¹⁸⁾이다. 친밀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은 1:1 관계에서의 친밀성과 다르다. 이때 생겨나는 친밀성은 1:1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친밀성보다 밀도가 낮다. 이때 형성된 친밀성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망 안에서 생겨나며, 각 개인이 특정한 역할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친밀 공동체는 “기능적 친밀관계를 보완하고 혁신하고 지원해주는 ‘우정의 네트워크’”¹⁹⁾가 된다.

이상의 정의 아래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을 통해 각 개인이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공동주거로 정의할 수 있다.

2) 연구대상의 정의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친밀 공동체형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개인이다. 이 연구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친밀 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장기거주(6개월 이상)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을 통해 각 개인이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공동주거로 정의할 때, 이러한 방식의 공동주거를 선택하는 이들은 제한적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갖지만, 공동주거의 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연구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셰어하우스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구분하고자 한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개인의 생활공간을 지키면서, 일부의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다.²⁰⁾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의 경우 셰어하우스보다 사적인 공간이 적지만, 그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관계망과 거기서 형성되는 친밀성의 역할이 셰어하우스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는 주거형태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

17) 정성훈, 「현대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통권 41, 2011, 363.

18) 같은 글, 362.

19) 같은 글, 364.

20) 셰어하우스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형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기업형으로 운영된다. 운영 방안은 각각의 셰어하우스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셰어하우스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더 넓은 공간을 쓰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관계 맺기의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지만, 그 관계는 제한적이다.

음과 같이 말한다.

“셰어하우스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은, 저희 빈집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셰어하우스가 아니잖아. 사실 셰어하우스라는 단어를 넓게 보면 당연히 셰어하우스죠. 그런데 그 문장에서 셰어하우스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뭐냐면, 아무 것도 같이 안하고, 집만 같이 쓰고 집세만 나눠 내고 완전 남남인 관계, 신경도 안 쓰고, 해야 될 것도 없는 관계, 돈으로만 엮어져 있는 그런 관계 인거고, 빈집은 해야 될 게 있는 집인 거죠. 누군가 해야 될 활동들을 안 하고, 빈집에 무관심하면 야, 그런데 우리 셰어하우스 아닌데 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F, 빈집, 여성)

“셰어하우스 시스템은 철저하게 내거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 한 집안에 사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구 참여자 H, 잘자리,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달랐으며, 각 사례별로 공동체로서의 성격 역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터뷰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로서의 관계망 안에서 친밀성이 형성되며, 그것의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들을 해당 범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공동체 사례 개요

(1) 우동사

우동사는 2011년 5월에 시작된 주거 공동체로 정토회 소속의 6명의 청년이 귀촌을 준비하는 모임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우동사는 인천 검암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동사는 5호까지 확장하였으며, 그 안에서 서른 명이 살고 있다. 우동사는 공동주거를 넘어서 마을을 매개로 하여 관계 맺기를 확장하고 있다. 검암동 인근에 펍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그 점에서 공동주거로서 우동사에 살고 있는 이는 서른 명이지만, 실제로 우동사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은 50여 명이 넘는다고 말한다.

(2) 숲과섬

숲과섬은 성공회 희년교회를 개척한 김홍일 신부가 만든 청년주거공동체로, 본래는 희년교회의 지역선교센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김홍일 신부는“무한경쟁에 내몰린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숲 쉼 틈을 내어주자는 취지”²¹⁾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숲과섬은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 5억짜리 신축 오피스텔에서 5층과 7,8층을 사용하고 있다. 전세금 5억원 중 상당부분은 대한성공회의 이름으로 대출을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김홍일 신부와 교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고 한다. 숲과섬은 영성공동체를 표방

21) 김보연, 「“청년들에게 ‘숲 쉼 틈’ 마련해 줍니다.”, 《국민일보》, 2016. 08. 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04418&code=23111640&sid1=ser>

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찰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숨과숨에 사는 이들이 모두 성공회 교인은 아니며, 기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3) 따로또같이

따로또같은 성북동에 있는 주거공동체로, “공동주거를 통해 비혼인들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²²⁾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로또같은 여타의 공동체들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만든 공동체이다. 연구 참여자 D가 자신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주거에 대해 학습하고, 성북동에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따로또같은 방 3개의 집인데, 정원이 3명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방을 쓴다. 현재는 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 인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4) 빈집

빈집은 해방촌에 위치 한 “공동주거주택, 혹은 공동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집들의 네트워크”²³⁾이다. 현재 빈집은 5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카페, 공동체 은행 등 빈집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빈집은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를 표방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는 손님과 주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지은 말로, 빈집의 지향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빈집은 다른 공동체보다 유동성이 높다. 연구 참여자 E와 F는 특정한 빈집 한 곳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빈집네트워크 안에서 유동적으로 집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했던 다른 공동체에서도 빈집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손쉽게 공동주거 모델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5) 잘자리

잘자리는 2014년 2월에 시작된 공동체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해 있다. 잘자리는 “부산 청년들의 자립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돕는 공간”²⁴⁾이다. 잘자리 구성원들은 잘자리 안에서 다양한 모임을 벌이고, 이 모임들을 통해서 구성원이 유입된다고 한다. 잘자리는 2016년에 망리동에 2호점을 만들었으며, 잘자리 구성원들은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내고 있다.

22) 따로또같이 입주공고문, <http://teateacaca.blog.me/220984602126>

23) Didi (Kyoung-ae) Han, 「Communicating Communes: A Case Study of Urban Communing Movement in South Korea」, M.A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2015, 1.

24) 잘자리 소개, 잘자리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g/GNBusan/about/?ref=page_internal

(6)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모두들은 2012년 시작된 주거협동조합으로,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해 있다. 모두들은 2013년 10월 두더지 주택 1호를 시작으로 하여 공동주거 운동을 시작하였다. 모두들이 부천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값이 저렴하고, 부천이라는 특색이 청년들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모두들은 현재 공동주거를 위한 다섯 채의 두더지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LH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7)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주택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2014년 2월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청년주거의 안정화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안모델의 필요성을 깨닫고, 협동조합의 형식을 통해 대안적 주택을 직접 공급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²⁵⁾한 협동조합이다. 민달팽이 주택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공동주거 주택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집을 만들고, 구성원을 모집·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집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각각의 민달팽이 주택 구성원들이 정한다.

4) 연구 참여자 사례 개요

(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우동사를 처음 시작한 6명 중 한 명이다. 연구 참여자 A는 직장을 그만두고 정토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만나 우동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우동사는 귀촌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귀촌 준비의 일환으로 인천 검암에 자리 잡아 공동주거 실험을 시작했고, 그것이 6년 째 이어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10년간 서울에서 혼자 살다가 우동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A는 귀촌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람들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동사는 펍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마을이다. 연구 참여자 A는 이 우동사의 대표이다. 이 점에서 그는 여러 미디어에 노출 된 바 있으며, 여러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2014년 여름에 숨과섬에 들어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B는 현대적인 수도 생활을 해보고 싶어 숨과섬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숨과섬을 통해 충족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B는 서울에서는 주거비용이 많이 드

25) 민달팽이 유니온 주택 협동조합 소개 <http://minsnailunion.tistory.com/9>

는데, 숙박비에 거주하면서 주거비용이 절감되었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2017년 2월부터 7개월 간 숙박비에 거주했다. 연구 참여자 C는 연구 참여자 B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연구 참여자 B로부터 숙박비에 결원이 생겼다는 것을 듣고 숙박비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다보니 외로움이 심해지고 공동체로 사는 데에 호기심이 생겨 숙박비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C는 관계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박비에 입주하였고,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말한다.

(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2014년 2월에 성북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공동주거를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을 비혼인으로 정체화하며, 앞으로의 비혼 생활의 지속을 위해 공동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따로또같이 시작하였다. 따로또같은 빈집의 운영방침을 일부 차용하였고, 일부는 셰어하우스의 운영방침을 차용하여 독자적인 운영방침을 만들었다. 따로또같은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만든 곳으로,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 D는 프리랜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성북동을 기반으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현재 홍성에 있는 빈고 공동체와 서울에 있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고 싶다는 생각에 1년 간 원룸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빈집을 알게 되어 빈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E는 빈집에서 5년 여간 살면서 빈집과 “깊이 연관하면서”살았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E는 과거에 빈집이 생태주의적인 가치, 반자본주의적인 가치 등을 지향하며 운동성을 강하게 가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연구 참여자 E는 예전에 빈집에서 기대했었던 운동성을 빈고 활동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스무 살이 된 2012년부터 빈집에 살게 되어 현재 6년 째 빈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F는 19살 때 빈집 구성원이 운영하는 문학동아리 활동을 통해 빈집을 알게 됐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F는 20살이 될 때 집을 나와, 한 두 달만 거주할 요량으로 빈집에 들어갔다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F는 빈집이 “어떠한 지향이 있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는 빈집의 지향이 약해지고, 여러 갈등이 생기고 있

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F는 현재 빈집 안에 있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빈집에 거주하는 이들을 인터뷰하여 아카이빙하여 그들이 빈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7) 연구 참여자 G

연구 참여자 G는 2015년 2월에 잘자리에 들어와 3년 째 거주중이다. 서울에서 일을 했던 시기에 3개월 간 빈집에 살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만 살았다고 한다. 잘자리에 살기 이전에도 고시원 원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전전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G는 부산청년포럼에 참여하면서 잘자리를 알게 되었고, 4개월 가량 잘자리를 오가다가 잘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G는 이 집에 들어온 해에 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며 이 집에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이 집에 들어온 한 계기였다고 말한다.

(8) 연구 참여자 H

연구 참여자 H는 2014년 8월에 잘자리에 입주하여 4년 째 잘자리에 거주 중이다. 연구 참여자 H는 개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집 보증금을 뺀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 I가 잘자리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여 잘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H는 현재 잘자리 2호에 거주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H는 본래 1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잘자리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자리를 확장시켜야겠다는 생각에 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H는 잘자리 2호로 이동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자 했는데, 자신의 바람대로 충분히 해내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9) 연구 참여자 I

연구 참여자 I는 잘자리를 처음 만든 멤버이다. 연구 참여자 I는 단기투숙으로 빈집에 여러 번 오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간적으로 자립하고 싶고, 부산에도 빈집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2014년 2월에 잘자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I는 빈집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 은행 빈고에서 대출을 받아 잘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I는 잘자리에서 살다가 2015년 4월에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잘자리에서 나갔다고 한다. 현재는 여주에서 공동주거를 하고 있다.

(10) 연구 참여자 J

연구 참여자 J는 2016년 12월에 잘자리에 들어와서 8개월 째 잘자리에 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J는 2013년부터 빈집에서 살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2년 간 여러 빈집을 오가며 살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J는 스물 두 살 때부터 빈집 생활을 시작했는데, 월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과 보증금이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빈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규칙을 돌려 쓴 집 내부의 갈등 때문에 8개월 만에 빈집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빈집 주위를 오가며 단기 투숙으로 생활을 하고, 빈집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또 다시 빈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J는 빈집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자리를 알게 되었고, 군 입대 전에 놓고 싶어서 잘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11) 연구 참여자 K

연구 참여자 K는 2014년 8월에 모두들 두더지하우스에 들어와 3년째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K는 지인을 통해서 모두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집값이 저렴하고, 모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지역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K는 현재 활동가로서 모두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12) 연구 참여자 L

연구 참여자 L은 1년 3개월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민달팽이 주택에 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L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주거 비용이 높아 공동주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L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이 많았고, 민달팽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L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이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음이 활동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 주거와 이어준다해서” 붙은 이름으로, 주로 입주 희망자가 입주 단계에서 참여해야 하는 워크숍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이 밖에 연구 참여자 L은 조합 안에 다양한 TF 팀에서 활동하면서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3 연구방법

1) 표집

연구자는 해당 공동체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 참여를 요청했다. 연구자가 이메일을 보내며 연구 대상에 대해 한정된 것은 거주 기간 뿐이었다. 연구자는 공동주거를 통해 맺게 된 관계들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리라 예상했고, 그러한 일들이 장기거주자에게 있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연구자는 공동주거 경험이 6개월 이상 된 장기거주자에 한해 인터뷰 대상을 모집했다. 해당 공동체에서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주어 인터뷰를 했으며, 인터뷰 이후에 연구 참여자가 해당 공동체에 살고 있는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 시켜주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구자의 요청에 7개의 공동체에서, 15명의 거주자가 응했다. 그 중 2명은 거주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 연구 참여자로서 부적합했다. 또 다른 한 명은 해당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²⁶⁾의 커뮤니티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공동주거의 성격이 열렸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남성 12명, 여성 3명을 인터뷰 했는데, 남성 2명, 여성 1명이 연구 참여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 삼은 이들은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총 12명이다. 이 중 9명은 1:1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3명은 각각 2명 씩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1팀은 2명 중 1명만 연구 참여자로서 적합하여 1명만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른 1팀은 2명 모두 연구 참여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명의 인터뷰 자료를 모두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장소는 해당 주거 공동체에서 인터뷰 한 경우 8명이었고, 해당 주거 공동체 인근 카페 3명, 홍대인근 카페에서 1명이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만들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집 선정에 있어 이 연구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는 데 있어 거주 기간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 진행 이후에 결과는 남성이 대다수였다. 연구자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표집 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연구자는 해당 공동체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이때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 중 상당수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구대상의 특징 때문이다. 집은 사적인 공간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장벽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구자가 남성이라는 점은 여성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제약 요건이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두 명의 경우에도 해당 공동체에 있는 남성 참여자의 소개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이 여성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연구자와 1:1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며, 여러 명이서 함께 인터뷰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²⁷⁾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26) 모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LH주택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주택은 오피스텔의 형태로, 입주자들은 1인 1실 혹은 2인 1실로 거주하고 있다. 이 사회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모두들 활동가 중 한 명이 이 공간을 관리하며,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27) 연구 참여자 C의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C는 연구자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지만, 혼자서 인터뷰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일주일에 1회 진행되는 생활자 모임 때에 그룹 인터뷰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일에 약속한 시간에 다른 구성원이 도착하지 못하여, 연구 참여자 C와 1:1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와 약속한 시간 이후에는 해당 공동체에서 별도의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허용된 시간은 1시간 뿐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현재 거주공간	거주기간	성별	나이	직업	비고
연구 참여자 A	우동사	6년	남	38	활동가	
연구 참여자 B	숨과섬	4년	남	35	대안학교 교사	
연구 참여자 C	숨과섬	7개월	여	27	대안학교 교사	
연구 참여자 D	따로또같이	4년	남	37	활동가	
연구 참여자 E	빈집 (노는집, 흥부집)	3년	남	20대 중반	아르바이트	
연구 참여자 F	빈집 (구름집)	6년	여	25	아르바이트	
연구 참여자 G	잘자리 (1호)	3년	남	29	기획자	
연구 참여자 H	잘자리 (2호)	4년	남	38	디자이너	
연구 참여자 I	여주 주거 공동체		남	29	아보리스트	H와 공동 인터뷰, 잘자리 14개월 거주
연구 참여자 J	잘자리 (1호)	8개월	남	26	아르바이트	2년 여간 빈집 거주 경험 있음
연구 참여자 K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3년	남	22	활동가	모두들 활동가와 공동인터뷰
연구 참여자 L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1년 3개월	남	28	활동가	

2) 연구 질문

- ①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어떤 관계망이 형성되는가?
- ②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
- ③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 거주하는 개인은 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선행연구

공동주거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세어하우스에 대한 연구에 국한된다. 세어하우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세어하우스의 공간적 특징과 그 활용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및 유인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동산학과, 건축학과, 디자인학과 등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특히, 부동산학과에서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세어하우스를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세어하우스라는 주거 형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주거를 하는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박혜준 (2014)²⁸⁾의 연구는 세어하우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인 <우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세어하우스의 공간적 특징과 거주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하지만 이 연구

28) 박혜준, 「강북지역에 공급된 공유형 주택 ‘우주’의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4.

는 셰어하우스의 공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박은진 (2012)²⁹⁾의 연구는 해방촌 빈집의 사례를 통해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에 대한 연구이다. 빈집 공동체를 중심으로 빈가게, 빈마을로 뻗어나가면서 대안적인 주거 실험의 사례를 통해 청년들의 대안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 연구는 빈집의 사례를 통해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모습을 살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있다. 김혜경 (2017)³⁰⁾의 연구는 공동주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4개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5명을 인터뷰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김혜경은 이 연구를 통해 공동주거가 일종의 돌봄의 공동체로 기능하면서 대안적 친밀성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김혜경의 연구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안의 개인들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밝히고 있지 못하다. 백미록의 연구(2015)³¹⁾는 여성주의 의제로서 주거문제에 접근한 연구로, M구 지역에서 거주하는 2-30대 비혼 여성들의 하위주거공간의 특성과 하위주거에 거주하는 맥락을 드러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비혼 여성들은 공간적 소외를 극복하고, 안전감과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거를 하는 사례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공동주거를 하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맥락은 드러나지 않는다.

4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과 역할

1)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1:1의 친밀관계에서 출현하는 친밀성처럼 밀도 깊은 친밀성이 아니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필요³²⁾에 의해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밀도가 열은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지낸 게 아니라, 공동주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친밀성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통해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이 친밀성은 깊어지지 않는다.

29) 박은진,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실험 : 해방촌 ‘빈(寶)집’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30) 김혜경,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통권 51, 2017.

31) 백미록, 「주거 불안을 통해 본 2,30대 비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 서울 M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32)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김혜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 형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필요’라고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는 물질적 필요, 외로이 지내지 않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지지집단, 즉 포괄적 의미에서의 ‘돌봄’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였다”

김혜경,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통권 51, 2017, 186.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혈연가족과 살 때 내가 더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마음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저는 그게 꼭 혈연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사는 거죠. 정말 특별히 못 견딜 정도로 싫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게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더 가까워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혈연이든 비 혈연이든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밥 먹는 정이라는 건데요, 딱 그 정도의 관계인 거지요. 밥 먹는 동안만큼 유효한, 한 집에 부대껴 살면서. (연구 참여자 D, 따로또같이, 남성)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친밀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친밀한 관계는 따로 있고, 딱 한 마디로 말하면 식구인 거죠.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같이 밥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친밀함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친밀함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뭐랄까, 정이 쌓인다고 하면 너무 진부하고……. (연구 참여자 E, 빈집, 남성)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은 옅은 친밀성이다. 이들은 같은 집 안에서 살면서 생활을 공유하지만, 깊은 친밀함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매일 얼굴을 보고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 두기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다. 친밀공동체가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³³⁾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망 안에서의 모든 친밀관계들에서 강한 친밀성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것은 개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나타나는 옅은 친밀성은 개인성을 강화하거나, 개인성을 지키는 성격을 갖는다.

공동체가 있다고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있어야,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공동체도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공동체를 지향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러면, 다 하나의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공동체성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독립되고 유연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집단주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L,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 남성)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제가 바라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혼자 몰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살 때 더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즐거움도 훨씬 더 크고요. 공간적으로도 같이 지내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연구 참여자 I, 잘자리, 남성)

친밀성은 개인성을 강화시킨다. 친밀관계를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자로 확인해주는 관계”³⁴⁾라고 할 때, 친밀성은 개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의 친밀성 역시 서로가 서로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주면서, 각자의 개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은 개인성을 지우기 위해서가

33) 정성훈, 「현대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미」, 《철학사상》 통권 41, 2011, 362.

34) 정성훈, 같은 글, 362.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개인성을 보다 발전시키고, 개인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이 각자의 개인성을 강화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러한 친밀성은 공동체로서의 관계망 안에서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관계망이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비혼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친밀성의 관계망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거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내가 매몰되기 전에, 매몰 되었던 안 됐든 아 내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감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중략... 어쨌든 나를 안아 주는구나 안전망이 되어 주는 것 같은 거죠. 나한테는. (안전망이 된다?) 네. 안전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크게 다치지 않게 누군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게 되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크게 다치지 않게 함께 이렇게 안전망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구참여자 C, 숨과심, 여성)

이상의 진술은 친밀성이 안전망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면서 각 개인이 고유한 인격으로서 존립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타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에 의해서 개인은 조금 더 독립적인 개인이 되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안정감은 돌봄의 영역에서 돌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주거를 통해 만난 개인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했다. 서로에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로간의 돌봄은 개인이 고유한 존재로 존립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다.

친소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효능감이 있고, 접근성 좋은 관계가 주는 효능감과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후자 쪽에 있는 효능감이 나한테 필요해진다고 느끼는 거고요. (연구 참여자 D, 따로또같이, 남성)

집에 누가 겨울에 감기에 걸리면 제가 닭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닭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누가 아프면 닭죽을 해야겠다. 내가 그냥 불 앞에서 한 시간 반만 서 있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좋아죽네, 라는 이게 있으니까. 그 만족감에 하는 거죠. 자기만족이죠. 저는 그게 좋은데, 그런데 한 번 되게 누가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나는 닭죽하겠다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고, 누구 한 명은 자기가 직장인데 개 아프다고 하니까 분죽에 전화 걸어서 주문 시켜서 계산하고 죽을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한 세 명이 정도가 동시에 뭐 하겠다고 움직인 거예요. 한 명이 아픈데. 그때는 되게 좋았죠. 그때 되게 집안사람들이 다들 다르게 보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연구 참여자 H, 잘자리, 남성)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을 수행한다. 이때 돌봄은 양방향으로 기능한다.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긍정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돌봄을 주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자기 만족감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친밀성이 강화되며,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2)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역할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타자를 만나게 하는 장이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각자를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 점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친밀성은 타자들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한다.

사이토 준이치에 따르면“친밀영역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관심에 의해 형성·유지”³⁵⁾ 된다. ‘구체적’이라는 말에는 이중의 뜻이 있다. 안면이 없는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라 간 인격적(inter-personal) 관계로서의 구체성과 신체를 갖춘 타자로서의 구체성이 그것이다.³⁶⁾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자신이 인지하는 분명한 실존으로서의 타자이다. 사이토 준이치는 친밀 영역 안에서의 친밀성이“타자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람-사이(人間)의 관계”³⁷⁾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비건인 사람도 있었는데요. 비건이라는 게 그 사람이 왜 하는 거고 이런 걸 몰랐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음식을 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음식 하기 전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무조건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하고, 그래서 소수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배려는 아닌데,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주변에 소수자가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연구 참여자 F, 빈집, 여성)

제가 여성주의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다는 말이 결과적인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인식에 대한 정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예민성 민감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요. 왜냐면 살고 계신 데에 활동가분들이 좀 계시고 하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각자 활동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영역들에서 고민들이나 혹은 그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대부분 그런 비영리 활동가영역에서의 교류를 통한 성장? ...중략... 뭔가 자연학습장 같은 느낌에 그런 것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성주의 이슈도 그렇고, 특히나 정치적인 이슈가 작년에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연구 참여자 L,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 남성)

친밀성은 타자를 타자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 도움을 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타자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게 된다. 타자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남성들은

35) 사이토 준이치 지음,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06.

36) 같은 책, 106.

37) 같은 책, 110.

대부분 그 경험을 여성주의를 학습하는 계기로 삼았다. 타자로서의 여성과 친밀관계로서 지내면서 여성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여성주의를 학습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 만나는 타자들은 각 개인에게 참조그룹으로 기능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참조그룹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엄기호는 참조그룹이“‘같음/동일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다름/타자성’에 기초한다는 점”³⁸⁾을 지적한다.‘다름/타자성’에 기초한 참조그룹들은 개인을 확장 시키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 간에 참조그룹으로 기능하며,“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참조점 (reference)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고 남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들으면서 성장”³⁹⁾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같이 사는 이 공간이 되게 좀 좋은 학습할 수 있는 경험 장 그런 게 있었죠. (학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행동이 크고 발소리가 크고 이렇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심결에 행동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화를 내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학습 하는 거죠. 그런 식에 제가 불현듯 나왔던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저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다른 곳에서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가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쌓이니까 언젠가 한 번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죠. 제 자신에 대한. (연구 참여자 J, 잘자리, 남성)

포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살 수 있고, 손님이 왔는데 발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사람이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하게 되고요. 그건 나랑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단절해둘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그 상황에 노출되고 그 자리에 던져진 거잖아요.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고요. 포용하고 해결하고 관계 맺는 방식들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인정하고 수그리고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수도 많고요. 혼자 살 때보다요. 나랑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랑 맞춰가야 하는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빈도가 굉장히 높죠. 혼자 살 때 보다는요. (연구 참여자 B, 솜과섬, 남성)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친밀성은 서로 다른 차이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때 형성된 친밀성은 타자의 다른 의견이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참조점으로 삼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친밀성은 타자와의 관계맺기를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친밀성에 기반하여 상호 간에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주거 경험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법을 배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불편한 것들, 자신의 감정 등을 말하는 법을 공동주거를 통해 배웠다는 이야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점이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의 생활을 통한 자신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술한다.

38)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22.

39) 같은 책, 8.

의사소통 방식도 배웠던 것 같아요.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순간에 잘 설명하면 되게 나한테 좋을 거라는 걸 그냥 습득한 거죠. ...중략... 의사소통 같은 것도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연구 참여자 F, 빈집, 여성)

제 스스로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관계나 이런 것에서 가면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의라고 해야 하나 예의의 범주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솔직한 감정들을 우리(모두들)는 우선시하고,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 누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걸 같이 공감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겠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도 저는 원래 별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감정 표현이나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솔직한 나로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K,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남성)

저는 그런 걸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원래 더 숨기는 편이고, 지금보다 더, 뭔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성격인데요. 저도 제 의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군대의 영향도 좀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변화는. (연구 참여자 L,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 남성)

이는 친밀성의 또 다른 역할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구성원 상호 간에 친밀성을 형성하고, 이 친밀성을 바탕으로 타자로서 만난 이들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통은 다시 친밀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통이란 서로의 차이 안에서 공통적인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⁴⁰⁾ 친밀성은 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1:1의 친밀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성과 다른 성격의 것이다. 1:1의 친밀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개인과 개인의 밀도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개인을 유일무이한 인격으로 확인해준다. 반면,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1:1의 친밀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성보다 밀도가 떨어진다. 연구자는 앞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공동체의 관계망 안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을 매개로 각 개인이 특정한 역할이 아닌, 고유한 인격적 개인으로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공동주거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 아래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때 나타나는 친밀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4장의 핵심이다.

4장 1절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1:1의 친밀관계에서 출현하는 친밀성과 달리,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생

40) 같은 책, 169.

겨난 열은 친밀성이다. 때문에 이때 생겨나는 친밀성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각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또한, 이때 생겨난 친밀성은 각 개인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장 2절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역할을 규명한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은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각자를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친밀성은 타자들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만나는 타자들은 각 개인에게 참조그룹으로 기능하면서, 각 개인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은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친밀성이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말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불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친밀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경합

1) 친밀영역의 확대와 사적영역의 과소화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집 회의를 가졌다.⁴¹⁾ 집 회의는 각 공동체에 따라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에게 집 회의는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공동체로서의 공적 공간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셈이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사적영역으로서의 집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공적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집은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사적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이 공간 안에서는 사적영역보다 공적영역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때문에 각 개인은 공적영역 안에서 사적영역을 지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공적영역 안에서 불편이 심화되면, 개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적영역으로서의 경직은 친밀성에 의해 완화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친밀성이 형성되면서, 집이 공적영역이 아니라, 친밀영역으로 재구성된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친밀성을 매개로 하여 친밀영역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그 자체로서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전화된다. 친밀영역의 확장으로 타자들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41) 별도의 집 회의 시간을 갖지 않는 공동체는 연구참여자 D가 소속되어 있는 <따로또같이> 뿐이었다. <따로또같이>의 경우 거주자 숫자가 다른 공동체보다 적고, 자주 아침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별도의 집 회의가 필요 없는 경우였다. 이와 같이 구성원 상호 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집의 경우 집 회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공간을 세어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인 사람은 여기서 잠만 자고 여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텐데요. 여기는 갈수록 친구와 같이 사는 사람과의 경계가 일치 되는 느낌이예요. (연구 참여자 A, 우동사, 남성)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맺어지는 친밀성은 이 공간 자체를 친밀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친밀성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이 점에서 집은 공적영역이 아니라, 사적영역이 확장된 친밀영역이 된다. 사적영역이 친밀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친밀영역 안에 귀속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호혜성이 생겨나며, 이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저는 하나의 캐릭터가 잡히고 역할이 잡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각 구성원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살다보면, 밥 하는 게 편하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신경을 못 쓰는데, 분리수거는 재깍재깍 버리는 데 신경이 잘 쓰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에 캐릭터들이 하나씩 잡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략...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것이 서로 잡혀가면 그게 서로가 삶에 있어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있구나, 라는 걸 서로가 인식하는 게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편한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살다보면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어느 순간 아, 나 진짜 재 왜 저러지 이런 순간이 또 와요. 또 마이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보일 때, 그래도 아, (저 사람이) 집안일에 기여하는 게 있지, 라고 떠올리게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각 구성원마다 자기의 역할이 하나씩 심어진다든 것은 사람에게 서로에 대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서도 플러스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연구 참여자 J, 잘자리, 남성)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을 다수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때, 친밀성은 사적영역을 친밀영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 이 충돌의 완충 및 충돌 방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경우가 구성원 상호 간의 호혜성이다. 이러한 호혜성은 공동주거의 단점들을 상쇄하며, 같이 사는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호혜성은 구성원 상호 간의 친밀성 안에서만 출현한다. 상호간의 친밀성이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영역이 친밀영역 안에 귀속 되면서, 구성원들은 집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사적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집 자체를 친밀영역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집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적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사적 영역 자체를 갖지 못하는 일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공동생활 하면서 불편한 건 크게 없거든요. 오히려 밖에서 학교 일 할 때,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죠. 거기서의 문제들을 여기서 털어놓기도 하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생활이 신경을 못 쓸 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 생활을 도와주는 것을 더 많이 경험을 해요. (연구 참여자 B, 솜과심, 남성)

(한 방을 같이 쓰는 것은 안 불편하세요?) 저는 무던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써요.) 공동주거에서 방을 같이 쓸 때는 그런 걸 무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기 편하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들은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불편의 요인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연구 참여자 J, 잘자리, 남성)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한 방 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개인은 집 안에서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큰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집 안에서 사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빈집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어렵지 않나요?) (프라이버시) 없어요. 저는 안 불편하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중략... 저는 되게 기준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잘 살아요. (연구 참여자 F, 빈집, 여성)

이상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집이 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한다. 우선, 사적영역이 친밀영역 안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친밀영역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므로, 사적영역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사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적다는 것은 이들이 장기거주를 통해 이 공간에서 사적 공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공간 안에서 사적공간과 개인의 사생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자기합리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사생활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보다 공동주거의 이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 점에서 사적공간과 사생활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구자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런 형태의 공동주거를 장기간 이어오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⁴²⁾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거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점에서 사적공간과 사생활이 없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공동주거를 오래 지속해온 특정한 개인들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집이 개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온전한 휴식을 위해 사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한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주거 안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42) 더 이상 공동주거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한 이는 연구 참여자 L 뿐이었다. 연구 참여자 L의 경우, 일부 구성원들이 불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동주거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5장 2절을 참고할 것.

혼자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바쁘세요. 나도 바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바빠서 생각보다 셋이 같이 방을 써도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물론 쓸 때는 필요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잘 돌아다니거든요.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불편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룸메이트들도 다 너무 활발하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셋이 다 같이 있어도 다 조용하게 잘 있을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각각 갖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숭과섬, 여성)

사람들이 다들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도 많아서 집에 안 들어오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는다든지, 사실 집에 다섯 명 이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방 하나가 비어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방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구적이진 않지만 짧게 짧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자기가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살기 어려운 거고요. (연구 참여자 E, 빈집, 남성)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주거를 하면서도 사적인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시간들 안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집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점은 집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적은 이유가 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술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집 밖을 벗어나거나,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누군가와 있는다는 건 그 사람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소통을 하기 싫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집에서 저는 그냥 이어폰끼고 유튜브 보고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나름 즐기는 방식을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K,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집 안에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사적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었다. 자신만의 사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도 사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여러 구성원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이 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존중된다고 했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성격이 열린 친밀성이라고 할 때, 이 안에서 개인이 각자의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다.

2) 사적 영역의 강조, 갈등의 계기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집은 사적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집은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된다. 이 점에서 가 함께 관리해야 집안일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집안일에 대한 개인의 감각 차이 혹은 개인의 성향에 대한 차이를 미리 알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들은 갈등의 계기로서 상존한다. 집이 개인의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 있어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견 차이들이 생긴다. 집안일에 있어서 모두가 균등하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구성원 사이의 집안일에 대한 감각 차이들이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감각 얘기는, 이 정도면 나는 더럽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가 되면 끝이 안 나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는 괜찮는데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 이 사람이 괜찮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면 불편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런 소통이 가능하지, 내가 당장에 삶에 여유가 없으면 내가 혼자 살아도 집을 못 치우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살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괜찮는데 왜? 그런 소통이,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I, 잘자리, 남성)

그냥 같이 사니까 이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의 단점이 있는 거지. 그냥,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치명적으로, 나한테 너무 치명적으로 힘든 부분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커버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나요?) 그러면 계속 같이 치우면 되죠. ...중략... 만약 그게 너무 힘들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어,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는 않아요. 거의 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0.1%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으면,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엄청 노력하는 거죠. 아, 노력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연구 참여자 C, 숨과섬, 여성)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집은 사적영역이 아니다. 이 점에서 개인은 집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구성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 구성원별의 차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들은 친밀영역 안에서 양해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차이는 여전히 상존해 있으므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차이들을 서로 조율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이려는 모습을 내보인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구성원 사이의 차이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구성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편함은 스스로 감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성의 정도이다. 친밀성에 따라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사적영역을 포기하고, 다른 구성원을 도울 수도 있다. 반대로, 구성원 상호 간의 차이가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왜 저 친구는 저기에 신경을 안 쓸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더 잘 보이고 더 좋아하는 것들은 그 친구가 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역할 다르듯이 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그냥 그런 생활이 공동체 생활을 유연하게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 참여자 B, 숨과섬, 남성)

(규칙이 없으면 없는 만큼 서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동의해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건데요. 규칙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

예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상적인 걸 맞출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중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공동체로 가려고 한다면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H, 잘자리, 남성)

자발성이 다 잘 되면, 해결 될 일인데요. 이게 안 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세금도 내가 낸 세금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내 노력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노력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개별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주거의 가치는 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 참여자 L,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 남성)

친밀영역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자율성이 발휘된다. 하지만 이 때 발휘되는 자율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이 자율성은 공동체 안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율성에 맡긴 것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이런 갈등들은 심해지게 된다. 집이 공적공간으로 성격이 변한다는 점에서, 집 안의 청결도를 비롯하여 집 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선이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차이들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갈등 상황 때문에 구성원이 나가게 된 경험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는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가사노동이라는 건 집의 청결도라든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실제로 이 집 (인터뷰 한 곳) 이 와해되었던 부분 중 가장 큰 게 가사노동이에요. 특히 여성인 친구가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 챙겨야 하는 것들을 어떤 친구들한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먹고 나서 바로 치우는 걸 왜 매번 이야기해야 하나? 내가 너의 어머니 가족도 아닌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갈등 상황으로 커지면서, 힘들죠. (연구 참여자 K,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남성)

공동주거가 집 값은 싸도, 그 안에 감정적인 노동이 섞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서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말을 하면서도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돈을 더 내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무형의 어떤 행동들, 무형의 감정(노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충 한 방에 해결이 되겠죠. (연구 참여자 J, 잘자리, 남성)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성이다. 서로가 서로를 각기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준점을 유지했을 때,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결속력을 가진다. 하지만 집을 친밀영역의 공간이 아니라, 사적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사적인 규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점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의 범용성의 낮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2〉 잘자리 거주 인원 변동⁴³⁾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8명	8명
2개월 이하	1년 이상
6명	4명

이 표는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거주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례로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이 갈등 상황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구성원이 나가게 된 경험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했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가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실 저희는 1년 안에 나가거나 바뀌게 되는 집이 대부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안 그런 거죠. 이런 집,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있죠. 말 안 해도 아니까. 다른 친구가 거실 청소하고 있다고 하면 조용히 가서 화장실 청소한다거나. 그런 집회의 때 나왔던 물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K, 모두들 두더지하우스, 남성)

그 사람하고는 평소에 그런 해결점 자체를 모색을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누적이 됐고, 마지막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갈라서는 방법 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것 자체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갔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든가 혹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거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만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같이 사는 관계인데, 그 필요가 다 했거나 혹은 같이 사는 것이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서로의 삶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관계 정리도 하나의 해결 방안인 거죠. 주거 공동체에서 누군가 갈등 문제 때문에 나가게 되거나 혹은 공동체 자체가 정리 되게 되는 과정들이 실패했다거나 잘못된 결과라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영원불멸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연구 참여자 D, 따로또 같이, 남성)

구성원 상호간에 밀접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여, 집을 친밀영역으로 만드는 경우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큰 문제가 없다. 서로의 친밀영역 안에서 집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을 개인의 사적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끼어들 때, 공동체에는 균열이 생긴다. “친밀공동체는 일대일의 친밀관계들과는 달리 다수의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기존의 관계들이 재구성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의 유입을 통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⁴⁴⁾ 이 점에서 개별 구성원들은 변해도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는 친밀공동체로서

43) 이 표는 잘자리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인원변동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자료를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당 인포그래픽은 잘자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facebook.com/GNBusan/photos/a.1657315294536857.1073741829.1653616248240095/1732508113684241/?type=3&theater>

44) 정성훈, 「현대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통권 41, 2011, 368.

의 공동주거의 장점이기도 하다.

3) 소결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5장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통해 친밀영역이 확대되고, 사적영역이 축소되었을 때, 개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5장 1절은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 안에서 사적영역이 축소되고 친밀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은 공적영역으로 부각되는데, 이 안에서 생겨나는 친밀성의 밀도에 따라서 개인은 이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장기간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를 이어 온 개인들이 이 생활 안에서 사적영역이 지켜지지 못함을 간파하고, 이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 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이 안에서 생기는 친밀성은 무엇보다 개인의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그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찾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 보장된다.

5장 2절은 구성원 사이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을 보여준다.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는 집을 사적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점에서 서로 간의 친밀영역 안에서 집의 제반 조건들을 함께 관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사적영역 안에서의 자율성으로 맡겨졌을 때,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친밀성의 밀도에 따라서 원활히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는 친밀공동체형 공동주거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